

### 작지만 큰 행복 ①

### 주부신행담



#### 사람살이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생활의 리듬을 지키다가 깨는 것은 일상에서 변화의 새로운 문을 구하는 삶의 활력이 된다.

사람들은 바뀐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때면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 여행은 일상을 깨뜨리지만 일상에 더 큰 힘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 삶은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살이'라 표현하고 싶다. 머슴살이, 살림살이, 시집살이, 더부살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시각 언어인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살이'는 구속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사람살이를 잊고 사는 우리네 삶이 그렇다. 우주 만물 중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영장으로서 구속되어 사는 것을 침사미 잊어버리는 우리 중

#### 구속과 아름다움

#### 함께 지닌 인생표현

생들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가? 내 삶 또한 그렇다. 내가 생활하는 곳은 장안산 골짜기 정수라는 곳으로 작고 조용한 산골이다. 내 어린 시절의 향기를 담고 있는 고향이기도 하다. 매일 접하는 산과 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일제미의 숙명적인 움직임같이, 주어진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땅막을 가득 메우고 화면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떠오른다.

철학에 너무 깊게 빠지거나 서구문화에 너무 흠뻑 젖어 나를 잊고 우리를 잊는 그런 그림은 막연하기에, 스스로 체험한 이야기를 화폭에 그대로 옮기고 싶은 뿐이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 미련은 있겠지만 살살이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움을 갖고자 힘을 다해 보고 싶다. 화면을 대할 때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싶은 욕심에 막연해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감이 젖고는 한다.

다시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이, 마치 깊은 산사 독락을 두드려며 않은 노승의 마음을 약간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문 (서양화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도 살아하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짐을 덜기 위해 인간이 받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아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 바로 그 기억이, 한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기도 한다.

2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채 실의에 빠진 나를 보내고 있었다. 건축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비합리적이고 부정관행에 대한 회의감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벌였지만 경영이 없었던 터에 사기까지 당해 가색은 급격히 기울어 버렸다.

그렇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불행치고 실의에 빠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초차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가난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참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생활속에 태어났던 비참한 나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내 심정은 참으로 입담하기 그지없었다.

진부터 그저 불교가 좋아 집에 다니며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던 나는 지루하기도 하고 잠고 싶은 실정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의지한다고 해봐도 그저 마음속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뿐이었지만 시간가는대로 경전을 열었다. 아니 불교는 이미 내 생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을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남편의 사업

것처럼 나도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싶어하였다.

방학을 떠나 청소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잠잘 때나 시간과 정성을 가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구절을 열송했다.

그러던 어느날, 이날도 역시 새벽 예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경상시보다 조금 늦은 탓에 아이들 아침이 늦을까봐 서두르며 돌아

### 바빠 서두르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내 몸은 마침 출발하려는 시내버스 바퀴 밑으로...

실제로 인근 공장에 다니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공장에 가기전에 한군데 꼭 다녀오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명대 사거리에 있는 대승원. 도착 하면 새벽4시쯤. 나는 법당에 들어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고 빌었다. 남편과 3남매 모두 건강하고 구경살았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금강경 감의를 듣기 위해 대승원엔 찾았다. 내가 부처님께 무엇인가 바라는

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빠 서두르다 그만 아스팔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 몸은 마침 출발하려는 시내버스 바퀴 밑으로 미끄러졌고 주위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조그만 외상 하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분명히 바퀴 밑에 들어가서 치였는데도 나는 멀쩡한 것이었다. 급경사를 한채 버스에서 뛰어내린 운전사 아저



씨가 오히려 더 놀란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아직도 끈히 잠들어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괜스레 눈물이 흘렀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죽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크지는 않지만 내 정성을 부처님께서 알아주신 것은 아닐까. 왜그런지 꼭 그렇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갈에 다니곤 했다. 물론 그때야 무슨 신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저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때 처음으로 기억하는 때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갈래 아버

지 자전거를 출차하고 길에 나왔다가 트럭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는 형태를 알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지만 나는 부분적인 팔과상만 입었을 뿐 특별한 다친 곳은 없었다. 운이 좋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용서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트럭과 사람이 부딪혔는데 멀쩡할 수가 있었는가.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돌봐 주신 은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영명화 <대구시 중구 삼덕동>

◆ These(Pleasures are) to me calamities, boils, misfortunes, diseases, sharp pains, and dangers. seeing this danger(originating) in sensual pleasur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런 감각적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 재앙이며, 불행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Both cold and heat, hunger and thirst, wind and a burning sun, and gad-flies and snakes - having overcome all these thing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As the elephant, the strong, the

spotted, the large, after leaving the herd walks at pleasure in the forest.

####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⑩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힘센 얼룩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노닐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For him who delights in intercourse (with others, even) that is inconvenient which tends to temporary deliverance; reflecting on the words of (Buddha) the kinsman of the Adikka famil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에(부처)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dikka 씨, 태양 (바울리아)  
\*kinsman 남자친척  
\*gad-fly (미소에 되는)모기

한영우 기자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 그랜드 침대, 이어서 좋습니다

- 집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결같은 고집에 온 전은 일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안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종에 2mm 강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무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강도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으며, 수명이 25년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선의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GRAND FANTASIA

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과천시 광안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음하고, 객인분기타 - 주유소, 대형키오스크,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최영문
- ALT-X 체인점**
  - 인천연수점 (032)812-9553
  - 서울강남점 (02)556-4468
  - 서울북부점 (02)9923640
  - 서울서부점 (02)808-3441
  - 의정부점 (0351)872-2192
  - 안양점 (0343)53-9263.4
  - 수원점 (0331)38-8280.1
  - 대구서부점 (053)654-6204
  - 대전서부점 (042)633-7071
  - 전주점 (0652)74-0072
  - 광주북부점 (062)524-4255
  - 제주점 (064)58-2660.1
- 사무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터넷이력 관리라이터, 3. 편집 디자이너 (각종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정영남

**Aquam**  
본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11 (032)812-9304  
TEL: (032)812-9304 FAX: (032)812-9304